## '记喜의スn砂'の1 これをとるから (でし5:11-31)

신 득 일 고신대 신학과 교수

#### 목 차

- 1. 들어가면서 | 27
- 2. 주석 | 28
  - 2.1. 정경의 상태 | 28
  - 2.2. 본문의 상태 | 28
  - 2.3. 내용분해 | 30
  - 2.4. 주석적 설명 | 31
    - 2.4.1. 소송 사유(11-14) | 31
    - 2.4.2. 남편의 역할(15) | 34
    - 2.4.3. 저주의 맹세와 여인의 반응(16-22) | 35
    - 2.4.4. 저주의 물과 판결(23-28) | 39
    - 2.4.5. 요약: 질투(의심)의 법(29-30) | 42
- 3. 나오면서 | 43



'고통의 재판'에 대한 해석(민 5:11-31)

본 논문은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고통에 의한 재판에 관한 주석적 연구이다. 간음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여인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그 재판 절차는 현대인에게는 아주 이상하고, 끔찍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그것은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판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통을 통한 이 재판은 야웨께서 구속사의 과정에서 손상된 가족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이상적인 언약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을 보여준다. 이 재판은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사상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관련이 있다.

# An Exegesis of the Ordeal in Numbers 5:11-31

주요어

고통의 재판, 간음, 하나님의 판결, 가족관계회복, 건강한 공동체

**Abstract** 

An Exegesis of the Ordeal in Numbers 5:11-31

Prof. Dr. Deuk-il Shin

This article is about an exegetical study in the ordeal in Ancient Israel. The legal process to unravel the truth for the woman who is suspected to commit adultery appears so strange and hideous for people in modern society. However, it is focused on God's judgement which heals the ten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This ordeal shows us that Yahweh took action to make Israel an ideal, covenant community in redemptive history by restoring the damaged family relationship. This trial has nothing to do with patriarchalism of Israel but rather with God's mercy.

Keywords

ordeal, adultery, God's judgement, restoration of family relationship, heathy community

## 1. 들어가면서

고대 이스라엘에 '고통에 의한 재판'(ordeal)같은 제도가 존재했다는 것이 현대인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진다. 이것은 정상적인 재판절차가 불가능할 때 불이나 물 혹은 둘 다를 사용하여 고통을 주어서 견디는 자는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신다는 것이다.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 절차를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궁금해진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내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중요한 요소를 다룬다. 민수기 6장은 이 책에 기록된 율법규정 가운데 첫 부분에 해당된다. 전체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 규정으로 구성되었다. 공동체의 정결, 타인에 대한 범죄를 상환하는 것, 남편의 의심을 받는 여인의 문제를 처리하는 규정. 이 세 주제의 공통분모는 관계문제이다. 정결문제는 공동체 전체와 관련되고 남자에게나 여자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이웃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다. 그리 고 남편의 의심을 받는 아내의 경우는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가족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언약의 공동체가 이런 갈등구조를 방치한다면 여기서 발생한 사회적 균열이 그 공동체의 통일성을 방해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속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특별히 언약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그것도 부부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상적인 언약공동체로 유지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고통을 통한 재판은 현대인에게는 아주 생소하고 비인간적인 느낌마저 들도록 하지만 이 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그 계시의 의미를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주석

#### 2.1. 정경의 상태

이스라엘 내부의 연대를 견고하게 형성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돋보인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민수기 5장과 6장을,1) 때로는 7장까지 한 단위로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 그 이유는 본문이 후대의 제사장 그룹(P)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을 지배하는 내용은 제사장의 직무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거기서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제사장의 직무수행이 본문의 핵심은 아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헌신이라는 더 넓은 차원에서 두 장을 묶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민수기 5장의 내용은 정결법과 도덕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게 구분된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견고한 유대와 결속을 위한 것이다.

#### 2.2. 본문의 상태

13절, 'ōṭāh 는 '그녀를' 자동사 '눕다'(śā ka b)(눕다)은 자동사로서 목적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ōṭāh(그녀를)는 'ittāh(그녀와 함께)로 읽어야 한다. 13절, '감추어졌다'(ne 'lam)는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주어를 아내로 보고

H. Seebass, *Numeri:* 1. Teilband, 1,1-10,10, BKAT, 4/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0-2012), 108; Martin Noth, *Das Vierte Buch Mose:* Numeri, Das Alte Testament Deutsch Atd, 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42; J. de Vaulx, *Les Nombres*, Sources Bibliques (Paris: Gabalda, 1972), 89.

여성인칭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사람이 발각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건이 목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15절, 한글번역에는 šikbat zer'a (사정)이 번역되지 않았다.

15절, 사마리아 오경의 몇몇 사본에는 마소라 본문의 *ālāw*(그것에)와  $h\bar{u}($ 그것)를 각각 여성( $\bar{a}l\hat{e}h\bar{a}, h\bar{i}$ )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여성은 문장에 맞지 않다.

17절,  $mavim \ q^e d\bar{o} \bar{s} \bar{t} m$  (거룩한 물)은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칠십인역, '흐르는 정한 물'(ὕδωρ καθαρόν ζῶν); 탈굼, 물두멍의 물(*mē kīnōr*); 페쉬타와 불가타, '거룩한 물.' 탈굼은 마소라 본문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고, 칠십인역은 다른 번역을 제시한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말하는데 광야에 있는 성막의 상황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17절, 칠십인역은 miškān (성막)을 '증거막'(τῆς σκηνῆς τοῦ μαρτυρίου)으 로 번역했지만 수정할 이유가 없다. 본문은 구조물로서 성막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페쉬타역은 '제단' $(madb\bar{a}h\bar{a})$ 으로 번역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18절, 칠십인역은 mē hammārīm (쓴 물)을 '확신의 물'(τὸ ὕδωρ τοῦ ἐλεχμοῦ) 이라고 번역했다. 이 번역은 내용상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물이 저주의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21절, 마소라의  $s\bar{a}b\bar{a}h$ 는 사마리아 오경과 같이  $s\bar{a}b\bar{a}'$  (유출하다)로 수정하 는 것이 낫다.

22절, 칠십인역은 마소라 본문의  $w^e$ lanpil (그리고 마르게 할 것이다)를 '히필형'으로 보지 않고 '칼형'으로 보고 καὶ διαπεσεῖν (그리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으로 번역했다.

27절, 칠십인역에는 '그가 그녀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w^c$ hišqāh 'et hammavim)는 문장이 빠졌다. 페쉬타는 세 번째 단어( $w^e h \bar{a} v^e t \bar{a}$ )까지 빠뜨렸다. BHS의 비평장치는 이것이 유사어미(homoeoteleuton) 때문이라고

한다.

28절, 사마리아 오경은  $nizr^{\ell}\bar{a}$  (임신되다)를 남성(nizra')으로 표기한 것은 zera' (씨)를 주어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소라 본문의 zera'  $nizre\bar{a}$  는 일관성 있게 여인이 주어가 되어서 '임신이 되도록 허락받다'로 이해할 수 있다.2)

31절, 첫 번째 접속사 w<sup>e</sup>는 '미결의 조건'(casus pendens)으로 쓰였다.3) 이와 같은 용법은 창세기 44:22과 사무엘상 16:2에도 나타난다.

#### 2.3. 내용분해

이 부분을 읽으면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가끔 혼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 현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이 다양한 원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중복표기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 중복은 히브리 이야기체 기교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다양한 원전 사용의 결과로 볼 필요가 없다.

우선 간략한 구조를 살펴보면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A. 소송(11-14절)

B. 고통 재판 준비(15-18절)

C. 맹세-저주(19-24절)

B'. 고통 재판 집행(25-28절)

A'. 소송요약(29-31절)

<sup>2)</sup> Ludwig Koehler, Walter Baumgartner, et al.,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HALOT)* (Leiden: E.J. Brill, 1994 - 2000), 283.

<sup>3)</sup> GK, §143 c. 이와 같은 용법은 창 44:22와 삼상 16:2에도 나타난다.

<sup>4)</sup> R. D. Cole, *Number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116.

이 분석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중심은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단락의 핵심내용은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내용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구조를 사건 중심으로 좀 더 상세하게 확대해서 본문을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 1. 남편이 소제물을 준비해서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간다(15절)
- 2. 제사장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고 맹세하게 한다(16-22a)
- 3. 여인은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아멘'으로 대답한다(22b)
- 4. 제사장이 저주의 물을 준비하고 소제물을 태운다(23-26a)
- 5. 여인이 티끌이 든 쓴 물을 마시고 판결을 받는다(26b-28)
- 6. 요약: 질투(의심)의 법(29-30)
- 7. 남편의 상태(31)

#### 2.4. 주석적 설명

#### 2.4.1. 소송 사유(11-14)

문제가 되는 대상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이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알아야 할 사안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4:12a).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법은 조건법의 형식을 띤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4:12). '만일'(kī)로 이끄는 조건절은 14절까지 포함된다.5) 아내의 혐의는 부부 간의 도리에서 벗어나서 언약에 불충한 것이다. '탈선'이란 말은 오직 음녀와 관련해서 쓰였기 때문에(잠 4:15: 7:25)

<sup>5) &#</sup>x27;언약서'에서 조건법(casuistic law)에 쓰이는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プ(키)이다(출 21:2).

이 구절도 음란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신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ma'al ma'al 이 앞에서는 하나님께 적용되었는데 여기서는 남편에게 적용되었다. 이 말은 언약이나 법적인 임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범죄행위를 가리킨다(레 5:15, 21: 26:40: 민 5:27: 31:16: 수 7:1: 22:20: 대하 28:19: 36:14: 겔 14:13: 15:8; 17:20; 18:24; 20:27; 39:26). 그런데 이 구절의 한글번역은 정확하지 않다.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다"(5:13a)에서 šikbat zer'a 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 말은 다른 본문에서 '설정'으로 번역된 사정(射精)을 의미한다(레 15:18: 19:20). 또한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라는 표현과 마치 양보절처럼 번역된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라는 표현도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본문을 바르게 번역하면 "한 남자가 그녀와 동침하여 사정을 했으나 그녀의 남편의 눈에 숨겨져서 감추어졌고, 그녀가 더렵혀졌지만 그녀 에 대한 증인이 없고 그녀가 잡히지 않았다면"이 된다. 이 관계는 쌍방 합의가 있었겠지만 그 남자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명백한 간음죄를 지었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것은 부정한 여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증인'(ēd)은 단수로 쓰였지만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한 사람은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레 19:15; 민 35:30). 그런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사건은 분명한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남편의 의심은 정당하지만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 물론 이 내용은 가정된 것이다.

14절에는 남편의 의심에 대한 이유가 언급되었다.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질투의 영이 그에게 엄습하여 그가 더럽혀진 그의 아내를 질투하거나, 질투의 영이 그에게로 엄습하여 그녀가 더럽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를 질투했다면"이 된다. 남편이 의심을 하는 것은 질투의 영(rū² ḥ qin '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영'(rū² ḥ)이라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제하는 마음, 즉 내적인 힘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분노와 같은 심리적인 능력과 관련된다(삿 8:3; 사 25:4; 겔 3:14; 잠 29:11; 전 10:4).6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질투를 사로잡히는 것은 미심쩍은 단서를 직접 발견했 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자질 같은 것을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질투는 정당한 것일 수 있고 무고한 아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아내가 의심을 받는 것이 간음이라는 범죄로 입증되면 그녀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레 20:10, cf. 신 22:22-24). 그러나 이 경우는 의혹만 있고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는 상태다. 남편은 의혹을 밝히고 싶지만 아내가 혐의를 부인하 거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침묵하면 현장범이 아닌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나 지속적인 남편의 질투는 상호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부부관 계를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피차간에 고통을 심화시킨다. 왜냐하면 질투는 파괴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잠 14:30). 증거가 없다는 것은 가족 간에 깨어진 유대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은 남편의 질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의 질투가 정당한 것인지를 다루는 것이다. 고대사회에는 무죄추정원칙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여성의 관점에서는 이 법이 불쾌한 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남자의 질투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자가 심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남자에 대한 여자의 질투를 언급하는 것은 문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지 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고자 하신다. 즉 죄를 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음으로써, 또는 무고한 여인의 결백을 밝혀서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는 간음의 가능성을 지닌 자에 대한 법 조항을 지닌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진다(131. "만일 한 남자의 아내가 그 남편에

<sup>6)</sup> R. Albertz/C. Westermann, "חַוֹּרַ", in Ernst Jenni and Claus Westermann,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THAT) II (München; Zürich: Chr. Kaiser Verlag; Theologischer Verlag, 1976), 738.

의해서 고소를 당하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할 동안에 잡히지 않았다면 그 아내는 신을 두고 맹세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132. "만일 한 남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받지만 다른 남자와 동침할 때 잡히지 않았다면 그녀는 자기 남편을 위하여 거룩한 강물에 뛰어들지니라").7 이 법전은 여인이 의심을 받는 것 때문에 자살을 강요받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고대 이스라엘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한다.

#### 2.4.2. 남편의 역할(15)

남편의 첫 번째 조치를 의심받는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것이다. 이때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보리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예물(qōrbān)로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준비하는 것이다. 그 예물은 소제를 위한 것이지만 소제와 다른 것은 그것이 '고운 가루'가 아니라 별로 공을 들이지 않은 보통 '보리 가루'일 뿐이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 가루 십분의 일 에바(2.2리터)를 속죄제로 드리면서 거기에 기름도 붓지 않고 유향도 두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레 5:11). 그렇게 소제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의심의 소제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제"이기 때문이다. 이 소제물에 대한 표현이 동의어처럼 쓰였지만(4:18) 의미는 약간 다르게 느껴진다. 의심(질투)의 소제(minḥat qʻnā'ōt)는 글자 그대로 남편의 질투로 인한 분노를 표현하고,8) 기억의 소제(minḥat zikkārōn)는 (죄가 있다면) 아내의 죄를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죄를 지적하는 고소자를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 이

<sup>7) (131)</sup> šumma aššat awīlim mussa ubbiršima itti zikarim šan îm ina utūlim la işşabit, nīš ilim izakkarma ana bītiša itâr. (132) šumma aššat awīlim aššum zikarim šan îm ubānum eliša ittariṣma itti zikarim šan îm ina utūlim la ittaṣbat, ana mutiša ld išalli. M. E. J. Richardson, Hammurabi's Laws: Text (London; New York: T&T Clark, 2004), 82.

<sup>8)</sup> HALOT, 1111.

소제물에 대한 이름을 의도적으로 나열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죄를 깨닫도록 재촉하는 의미로 쓰였다.9)

이 소제물에 대한 이런 이름은 남편의 입장에서 표현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절차를 보면 남편이 이 소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다. 그가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은 불타는 질투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부부싸움이나 다른 사람의 소문의 근거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증거나 증인이 없어서 판결할 수 없는 무능한 재판관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나아간다.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10)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임무는 끝난다.

#### 2.4.3. 저주의 맹세와 여인의 반응(16-22)

남은 절차는 제사장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것은 남편은 모든 절차와 그 재판의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제사장은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운다.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은 주로 법궤와 관련된 말이다(출 28:30; 신 10:8; 31:26).11) 그러나 남자라도 제사장이 아니면 법궤 앞에 설수 없는데 여인이 거기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칠십인 역은 '회막' 또는 페쉬타는 '제단'으로 해석했다. 아마도 본문의 의미는 성막 앞에 놓은 번제단 앞의 뜰이 될 것이다(왕상 8:31-32).12) 그 여인이 여호와

<sup>9)</sup> Seebass, Numeri 1.1-10.10, 136.

<sup>10)</sup> H. M. Ohmann, Tellingen in de Woestijn (Uitgave Bond van Mannen verenigingen op Geref. Grondslag, 1983), 34.

<sup>11)</sup> D. I. Shin, The Ark of Yahweh in Redemptive History (Eugene, Oregon: Wipf & Stock, 2012),

<sup>12)</sup> Jacob Milgrom, The JPS Torah Commentary, Number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39; B. Levine, Numbers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v. 4A (New York, N.Y.: Doubleday, c1993), 195.

앞에 서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하여 판결을 내리실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저주를 가져오는 쓴 물을 통해서 나타난다. 거룩한 물을 담은 토기에 성막 바닥의 티끌을 담아서 제조한 물이다(5:17). "거룩한 물"(mavim q<sup>e</sup>dōšīm)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단순히 깨끗한 물이라 기보다는 이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탈굼의 번역과 같이 성막 뜰의 물두멍의 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출 30:29). 이것은 부정을 씻는 결례의 물과는 다른 것이다(민 19:9). 그 물은 제사장들이 씻어서 성소에서 봉사할 때 죽음을 면하게 하는 물이다(출 30:21). 그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의 흙을 담는 데, 성막 바닥은 기름으로 거룩하게 된 대상이 아니지만(출 30:26 - 30) 그 흙은 여인과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연결시켜주고 또한 그 흙이 여인의 순결에 대한 하나님을 판결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물이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저주를 불러오는 쓴 물)이 되었다. 이 내용과 놀랍도록 유사한 재판과정이 마리 서신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맹세를 선언하기 전에, 그들이 마리 성문의 기둥과 흙을 취하게 하자 ... 그리고는 우리가 맹세를 선언하자." 그들이 마리 성문의 기둥과 흙을 취해서 물에 풀었다. 그리고는 신들과 여신들이 마셨다. 에아가 말하길, "너희가 마리의 관리와 마리의 벽돌작업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라(ti-ba-a)."13) 신들과 여신들이 맹세하여 말하길, "우리가 마리의 관리와 마리의 벽돌작업을 훼손하지 않을 것입니다"(ARM 10, 9:12-26). 이 병행기사가 유사하다고해서 이 문헌에 근거 를 두고 성경본문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리 서신은 에아의 신들이 다른 그룹의 신들에게 마리를 손상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절차가 담긴 내용이다. 그래서 죄를 밝히는 내용과는 다르다. 그들이 마리 성문의

<sup>13)</sup> 아카드어 동사 ṭi-ba-a (< ṭiābum)는 '만족시켜라'는 뜻이다: "Donnez satisfaction aux dieux" (신들에게 만족을 주어라). Maurice Birot, Jean Kupper and Olivier Rouault, Répertoire Analytique, *Archives Royales de Mari* (Romanized Ed.), 10 (Paris: P. Geuthner, 1979). 36-37.

흙과 기둥의 요소를 타서 마시고 맹세하는 것은 그들이 훼손한 마리의 본질인 흙과 기둥의 요소를 마시는 것이다.14) 그러나 민수기의 본문은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선 여인이 해야 할 지시사항을 알려야 한다(4:18). 여인은 먼저 머리를 풀고 다음으로 양손으로 그 기억의 소제물 즉 질투(의심)의 소제물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머리를 푸는 것은 애도의 관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레 10:6 21:10; 겔 24:17). 이 상황에서 슬픔은 여인의 슬픔인 동시에 가족의 슬픔이 된다. 이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정말 그 분위기는 가족적인 슬픔이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자체가 그들에게 는 슬픔이기 때문이다.

여인은 하나님과 제사장 앞에서 맹세를 해야 하는데, 그 맹세는 먼저 자신이 신실하다면 자신이 무죄하다는 말로써 시작하고 그 다음 반대되는 내용으로 맹세한다. 무죄의 맹세와 관련된 구절을 번역하면, '그리고 제사장이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녀에게 말하길, 만일 한 남자가 너와 동침하지 않았고, 만일 네가 네 남편(의 권위) 아래서 탈선하여 더러워지지 않았다면, 저주를 불러오는 그 쓴 물(의 영향)에서 벗어나라'고 할 수 있다. 한글개정의 "네 남편을 두고"라는 번역은 원문에 tahat 'īšēk' 라고 쓰였는데 문자적으로는 '네 남편 아래'이지만 내용을 고려해서 '네 남편의 권위 아래'로 번역한다 (ESV).15) '벗어나라'(hinnāqī)라는 명령은 심판이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인 데 아내의 무죄를 선언하는 법적인 판결이다(렘 2:35; 25:29; 49:12).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개역개정에서 괄호로 표시한, 여인이 다시 저주의 맹세를 한다는 내용은 19절 상반절과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 저주의 내용으로 주어진 저주(거 리)와 맹세(거리)는 다시 그들을 고소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심리적이고 사회

<sup>14)</sup> Levine, Numbers, 210.

<sup>15)</sup> HALOT, 1722.

생식기가 망가지고 자궁이 유출되는 것은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다만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해지는 신체적 현상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17) 만약 그 남자의 사정의 결과로(13절) 아이가 잉태되었다면 사산이나유산도 포함이 될 것이다. 이것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임신과는 대조되는 심판으로 나타난다. 자식이 없는 것은 현대인에게는 그냥 적적함을 느끼는 정도이지만 구약시대에는 심판이나 재난으로 여겨졌다(창 30; 레 20:20-21; 삼상 1:8). 그 여인은 그 저주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두 차례 '아멘'이라고 말해야 했다(4:22). 이것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저주의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신 27:15-26).

<sup>16)</sup> T. Frymer-Kensky, "The Strange Case of the Suspected Sotah (Numbers V 11-31)," VT34, 1 (1984) 20,

<sup>17)</sup> Seebass, Numeri 1.1-10.10, 141.

#### 2.4.4. 저주의 물과 판결(23-28)

다음 단계는 제사장이 '이 저주들'을 책에 적어서 그 기록을 물에 빨아야 했다(4:23), '이 저주들'(hā'ālōt hā'ēlê)이라고 복수로 쓴 것은 앞에서 언급한 신체적인 것과 사회적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식한 표현이다. 저주를 기록할 '책'(sēfer)은 한글번역의 두루마리는 아니고 양피지나 파피루스 용지 가 될 것이다. 그 글자를 물에 빨아 넣는다는 표현에서 '씻어내다'(māhā)의 목적어가 없지만 기록된 문서가 목적어가 된다. 이때 그 행위는 그 문서를 씻어서 저주의 내용을 지우는 것이다.18) 지워진 글자가 풀려서 물에 들어가서 그 쓴물을 여인이 마실 때 저주는 기록된 문서에서 물로, 물에서 다시 여인의 몸으로 옮겨진다. 그 쓴 물이 실제로 신체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선언의 의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19) 실제로 그 글자가 쓴 물이나 여인의 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행위는 마치 마술적인 의식과 같이 여겨지지만 이것은 말씀과 상징의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구약의 교회는 상징으로써 말씀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신약교회가 성례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상징을 통해서 말씀을 확정해 주신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례에서 상징과 말씀을 혼동하지만 개혁주의 성례는 약속의 말씀과 상징간의 깨어지지 않는 유대를 유지하지만 혼동하지는 않는다.20) 상징과 본질을 혼동할 때 성도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그 의식은 제사장이 여인에게서 그 질투(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 소제물을 흔들고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여인이 그 쓴 물을 마실 때 끝난다. 소제물을 '흔들다'는 것을 거제와도 같이 '위로 올리다'로

<sup>18)</sup> M. Haran, "Book-Scrolls in Israel in Pre-Exilic Times," JJS 33 (1982) 169.

<sup>19)</sup> L. Alonso-Schökel, "הָּדֶמֶ," ed.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trans. Douglas W. Stott,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DOT) (Grand Rapids, MI;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228. 20) Ohmann, Tellingen in de Woestiin, 35.

번역하는 학자도 있지만21)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제사에서 제물을 앞뒤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 둘은 제사장에게 돌리는 몫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소제물의 한 웅큼은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한 것은 기념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래서이것은 15절에서 전체 제물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물이라는 것과는 달리,원문은 "그것의 기념물"('azkārātāh)이라고 표현했다(LXX, Vulg, RSV, ESV).이 기념이란 말은 '기억하다'(zākar)에서 온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물의일부를 드리는 것은 속죄를 위한 목적도 아니고 그 여인이 죄를 기억하도록하기 위함도 아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공의로 판결하시도록하기 위함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판결이다. 이 말은 고통을 통한 판결이 아니라는 뜻이다. 세상의 재판은 항상 자신의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전 3:16). 그러나 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정의롭게 판결하실 것이다. 그 판결은 여인이 맹세한 내용대로 신체에 신호가 나타날 것이다(4:19-22). 유죄일 경우는 그 저주의 쓴 물이 몸에 해를 끼쳐서 고통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저주거리와 조롱거리가되어서 '주홍글씨'를 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여인이 받는 심판이다. 그러나여기서는 여인이 유죄로 판명되어 율법이 간음에 대해서 규정한 것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레 18:20, 28; 19:20). 본문은 그런 심판을 요구하지 않는다.

함무라비 법전은 강물에 의한 판결이 있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 유죄면

<sup>21)</sup> HALOT, 682; Milgrom, *Numbers*, 41. 아마도 이 견해는 '높아지다'를 의미하는 아랍어 *nāfa(u)*나 이집트의 제의에서 제물을 바닥에 놓았다가 신 앞에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은 제의의식을 반영했을 것이다. H. Ringgren, "ㄲ૦," TDOT 9, 296, 298. 그러나 아카드어 *nâpu*를 위시하여 동종어 어원이 '흔들다'를 의미한다.

빠져죽고, 무죄면 강에서 떠오른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법의 고소를 했으나 그의 죄를 밝히지 못하면 마법의 고소를 당한 사람은 거룩한 강으로 가서 그 강에 뛰어들 것이라. 만약 힘센 강이 그를 삼키면 그를 고소한 사람을 그의 집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강이 그 사람을 그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면 그는 가서 회복될 것이다. 그에 대해서 마법의 고발을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할 것이다. 강에 뛰어든 사람이 그를 고소한 사람의 집을 차지할 것이다."22) 이런 종류의 판결은 고대근동 세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그들의 최종 결정은 자연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모든 역사현상은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다이너미 즘이라는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다.23)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연의 능력을 의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공의로 판결하시는 성소의 하나님을 의존한다.

그러나 아내가 무죄일 경우에는 쓴 물의 해를 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상을 받는데 그것은 임신에 대한 약속이다. 아내가 임신하는 것은 남편과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결과로 온전히 회복된 가정에 대한 보장이 된다. 아마도 불임상태에 있는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외도에 대한 의심과 무자한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는 아내와 함께 슬픔을 겪은 한 가족을 이렇게 회복시킨다.

šumma awīlum kišpī eli awīlim iddīma la uktīnšu, ša elišu kišpū nadû. ana Id illak, Id išalliamma.

<sup>22)</sup> L2 (V:33 - 56)

šumma Id iktašassu, mubbiršu bīssu itabbal.

šumma awīlam šuāti Id ūtebbibaššuma, ištalmam ša elišu kišpī iddû, iddâk. ša Id išliam, bīt mubbirišu itabbal: Richardson, Hammurabi's Laws, 42.

<sup>23)</sup> Harrison, 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295 - 296.

#### 2.4.5. 요약: 질투(의심)의 법(29-30)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 절차를 요약하고는(29-30) 남편은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한다(4:31). 본문에는 남편이 아내를 질투하고 의심하여 아내를 제사장에게 고발하고도 그 고발이 부당한 경우에도 남편에 대한 책망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남편이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인뿐만 아니라 고대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대로 바벨론에서는 무고죄를 지으면 생명과 재산을 잃는다. 중기 앗수르의 한 법전에는 동료가 동성애를 한다고 비난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태형, 봉사와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도 있다.24) 물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똑같이 적용할지는 모를 일이다.

그런데 본문의 구문을 고려하면 남편은 무조건 무죄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남편이 무죄일 경우에 아내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랍비들을 그렇게 이해했다(Sif. Num. 21). 또한 남편이 무죄하므로 아내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은 남편의 질투와 고소가 정당하기 때문에 아내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글번역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는 '그래서 그 여자는 자신의 죄벌을 담당할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죄벌을 담당하다'(nāśā áōnāh)는 단순한 죄를 의미하지 않고 죄의 결과인 심판을 뜻한다(창 4:13; 민 18:1, 23; 30:16; 사 53:5-6).<sup>25</sup>)

<sup>24) &</sup>quot;만일 남자가 은밀하게 자기 동료에 대한 소문을 '누구나 그와 동성관계를 가진다'라고 퍼뜨리면, 혹은 대중 앞에서 싸울 때 그에게 '누구나 너와 동성관계를 가진다'고말하면, 또 '나는 너에게 혐의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혐의를 증명할 수 없고,하지도 못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대기로 오십 대 때릴 것이다; 그는 한 달 동안꼬박 왕을 섬기고 사람들이 그의 머리카락을 자를 것이다(수염?). 더욱이 그는 납 삼천육백 세겔을 지불할 것이니라"(A §19). William W. Hallo (ed.), The Context of Scripture

II: Monumental Inscrip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Leiden: Brill, 2000), 355.

<sup>25)</sup> K. Koch, " זון," TDOT 10, 557-58.

이스라엘의 법이 가부장적인 성향을 띠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자기 백성인 신앙공동체가 거룩함과 순결을 지켜서 건강한 가족관 계를 통한 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있다. 이것은 육체적 순결과 대인관계와 결혼관계의 신실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 3. 나오면서

고통을 통한 판결은 아내의 재판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손상된 부부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조치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구속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강한 언약 공동체로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도일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준다. 여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만 불륜으 로 인한 사건은 종결된다. 반대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생명의 보상을 받는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여성에게 가혹하고 야만적으로 여겨지는 이 재판절차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제도가 주는 메시지는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그것은 결혼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이 법은 하나님이 간음으 로 인한 가정의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경고를 준다.